

遺物 繡노리개와 現代 繡노리개의 比較研究 (1990년 市中 수노리개를 中心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홍 복 의
국제복식학회 연구원장 박 경 자

目 次	
I. 서 론	IV. 패용 경향
II. 노리개의 고찰	1. 수노리개 구성의 변화
1. 노리개의 기원	2. 용도의 변화
2. 노리개의 종류	V. 결론 및 제언
III. 수노리개의 고찰	참고문헌
1. 우리나라 繡의 발달	ABSTRACT
2. 유물과 현대의 수노리개 비교	

I. 서 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노리개는 실용성, 주술성, 장식성을 갖고 여인들의 옷고름이나 치마끈에 패용하던 우리나라 전통적인 장신구이다.

노리개에는 보패류로 만들어진 것과 여인들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수노리개가 있는데, 조선시대 초기에 상류층에 국한되어 사용되던 자수가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양반층의 수요가 급증하고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로 부유한 중간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자수에 대한 수요가 대폭 확대되어 수노리개가 더욱 발달 되었다.

시대의 변화와 서양문물의 도입으로 의생활에 변화가 일어나 양복을 착용하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자 노리개의 패용은 잠시 쇠퇴하였다가 요즘은 우리것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면서 한복착용의

증가와 더불어 노리개 패용도 늘어나고 있다.

보패류로 된 노리개보다 수노리개가 구입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덜되고 섬세하고 화려함이 패용층을 넓혀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후기 유물 수노리개를 기초자료로 하여

첫째, 유물과 현대의 것을 형태, 문양, 색, 술등을 비교하여 보았으며,

둘째, 패용경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고찰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조선시대 후기(1650년대~1890년대) 유물 수노리개 97점과 현재 서울시내 도매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노리개 95점을 조사, 수집하여 연구범위로 하였다.

현대의 것은 대량생산되는 실정이므로 숫자가

사실상 의미가 없으나 비교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유물과 숫자를 비슷하게 하였다.

3. 연구의 내용

본 논문에서는 수노리개에 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찰하였다.

첫째, 노리개의 기원과 구성, 종류에 대하여

둘째, 수의 발달, 수노리개의 형태, 문양의 상징성을 고찰하고 유물과 현대의 것을 형태, 문양, 색, 술등을 비교하였다.

셋째, 구성, 용도, 패용의식을 통하여 패용경향을 조사하였다.

4. 연구 방법

노리개의 기원, 구성, 종류와 수의 발달, 형태와 문양의 상징은 문헌을 통하여 고찰하였으며, 유물 수노리개에 관한 자료수집은 선행연구를 기초자료로 하였고, 현대 수노리개는 서울시내 도매상가 20여곳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선행연구와 같은 형식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0년 1월~8월까지 하였고, 패용경향은 도매상가의 판매자 2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하여 조사한 것을 정리하였으므로 그 내용이 극히 일부의 것임을 또한 판매자가 주관적인 견해를 섞어서 이야기 할 수도 있었음을 밝혀둔다.

II. 노리개의 고찰

1. 노리개의 기원

노리개란 패물로서 허리띠나 옷고름에 차는 보물이며 속어로 노리개라 하였으며 노리개가 음변하여 노리개가 되었다.¹⁾

장신구는 의복이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장식적 요소를 지닌다고 볼때 의복의 형태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시대 초기에 고려 이래의 國俗을 이어받은 저고리가 있었으며, 그 양식은 삼회장저고리이며 옷고름은 상고저고리와 근세이후 저고리를 구별하는 가장 뚜렷한 구분인데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진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임이 틀림없으며 종종 22년에 나온 訓蒙字會에 「옷고름」이라 보이고 國初 초상화에도 고름이 나타나 있다.²⁾

패물은 우리나라 복식사에서 볼때 조선왕조 이전에는 의복구조상 흔히 허리띠에 찌기 때문에 요패라고 불리었으며 고려후기에 들어와서 몽고복식의 영향을 받아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옷고름이 보편화되어 패물을 옷고름에도 차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조선왕조 여인의 노리개인 것이다.³⁾

수노리개의 기원은 불교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불교에서 使用하던 輦의 장엄장식과 수노리개 주체의 형태가 유사한 것이 많이 있는데, 매미형, 나비형, 석류형, 천도형, 박쥐형, 바늘집형 등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형태이며 노리개의 연꽃과 연등 형모양으로 복합된 연등형은 불교형으로 볼 수 있다.

노리개와 輦垂飾은 모양과 크기에 있어 비슷하나 끝이 달린 술이 끈으로 되어 있으면 輦垂飾이고 딸기술 봉술로 되어 있으면 노리개이다.⁴⁾

전라남도 昇州郡 仙岩寺에 있는 輦의 장엄장식에는 수식이 없는데, 일설에 의하면 인근의 부녀자들이 불공을 드리러 왔다가 이 수식을 허리의 주머니 끈이나 저고리에 차면 길하다 하여 하나 둘씩 모두 떼어갔다고 한다.⁵⁾

이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수노리개의 기원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노리개의 종류

(1) 三作 노리개

三作노리개는 주체를 이루는 금은·옥석·보패의 진귀함과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 大三作, 中三

1) 박경자, 「한국복식논개」(서울: 신구문화사, 1983), P.107.

2) 이경자, 「한국복식사론」(서울: 일지사, 1985), p.41.

3) 유희경, 「한국복식사 연구」(서울: 삼성인쇄주식회사, 1975), p.52.

4) 허동화, 「한국의 자수」(서울: 삼성 출판사, 1978), p.26.

5) 이 학, 「한수문화」(서울: 한국자수문화 협의회, 1986), p.203.

作, 小三作으로 구분 되기도 하였다.

大三作이라고 하면 노리개 최고의 명칭으로 오래 궁중에서만 사용되었으며, 가장 크고 호화로웠다. 王妃만이 사용될 수 있었다는 「三千珠노리개」는 불교에서 말하는 三千大世界을 상징하는 것으로 매우 큰 진주를 3개씩 꿰었다.⁶⁾

中三作노리개는 궁중이나 상류계급에서 패용하였으며, 大三作보다 그 크기가 작을뿐 형태나 재료에는 별 차이가 없고 보통 后, 妃의 소례때 썼다.

小三作노리개는 궁중에서 “王妃가 東溫突로 드는 날 밤……王妃의 복색은 낮과는 달리 분홍색 소고의에 남치마를 입고 웃고름에는 小三作노리개를 썼다.”고 하며, 일반 젊은부녀나 어린이들이 패용하기도 하였다.⁷⁾

(2) 단작 노리개

三作노리개 중의 하나를 따로 패용함으로써 「單作 노리개」가 되며 따로 하나로만 된 노리개도 단작으로 불린다. 단작노리개는 경사때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썼다.

(3) 수 노리개

수노리개는 주로 單作으로 패용되며 주체속에 사향, 부용향, 옥추단같은 쉼을 향갑이나 향낭의 형태 속에 넣어 향수의 역할과 위급시 즉 급체시 구급약의 역할도 하는 실용과 장식의 성격을 띠었다.

그외에 주변의 동물, 식물, 생활용구에서 형태를 본떠 수놓아 패용하였으며, 바늘집같은 것은 그 속에 바늘을 휴대해서 필요할 때 쓸수 있게 하였다.

Ⅲ. 수노리개의 고찰

1. 우리나라 繡의 발달

(1) 三國時代의 수

고구려, 백제, 신라 세나라는 고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서 지배층들은 새롭게 신분질서를 개편하여 위계질서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신분에 따른 복식에 등급이 매겨지고 지배층의 권위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의복을

금이나 은으로 장식하거나 수를 놓기도 하였다.

(2) 통일신라의 수

「三國史記」에 보면 문무왕이 복식금령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부인들이 중국의 의복을 입으라는 명령에 따라 처음에는 가죽으로 만든 띠와 기타 천으로 만든 띠를 띠었으나, 날이 갈수록 수와 장식이 화려해져 그것을 막기 위해 복식금령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애장왕때에는 錦繡로 불공하는 것과 승마용구, 珠廉, 병풍등에 수놓은 것을 금했다는 기록이 있다.

흥덕왕 9년에는 사치금령을 발표해서 수놓은 비단을 비롯한 고급직물과 자수 병풍등의 사용에 대해서도 등급별로 엄격히 통제했다.

(3) 고려시대의 수

고려는 신라의 문화, 전통과 예술, 사회제도를 이어받아 그 위에 선진문물을 서로 융합시켜 창조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고려시대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냈다.

특히 불교가 중요시 되어 국가적인 의식과 행사-예를들면 연등회와 팔관회-의 중심이 되었으므로 불교에 관련된 수예품 또한 상당히 발전 하였다.

「고려도경」이나 「고려사」 일반문집 등에는 조선시대의 활옷이나 진주선과 비슷한 수작품과 각종의식에 사용했던 여러가지 물품에 대한 기록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繡가 고려인들의 생활속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조선시대의 수

조선초에는 상류층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던 수가 후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한 국가 지배력의 不在로 신분제가 혼란에 빠지면서 양반의 수요가 급증하고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로 부를 축적한 중간계층과 경영형 富農이 출현함에 따라 민간의 수에 대한 수요는 큰폭으로 확대되었다.

조선시대의 자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궁중에서 필요로 하여 생산되는 궁수와 사대부이하 일반 여염에서 생산되는 민간의 수로 구분된다.

(5) 대한시대의 수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근대식 교육제도가 도입

6) 유희경, 전제서, p.313.

7) 김희진, 「한국매듭」 (서울: 고려서적 주식회사, 1982), p.35.

되어 여러성격의 교육기관의 설립과 함께 여학교도 설립되었다.

이들 여학교의 교육내용중에는 자수시간이 있었는데 일본의 자수교육을 받은 교사가 지도를 하게 됨으로 이시기에는 전통자수와 일본의 영향을 받은

자수가 서로 다른계층에서 공존하고 있었다.⁸⁾

2. 유물과 현대 수노리개 비교

(1) 형태 비교

〈표1〉 유물 수노리개와 현대 수노리개의 형태 분류

(단위:점)

형태 시 대 종류	동물 형		형태 시 대 종류	식물 형		형태 시 대 종류	기하 학형		형태 시 대 종류	기 타		형태 시 대 종류	불교 형	
	유 물	현 대		유 물	현 대		유 물	현 대		유 물	현 대		유 물	현 대
매 미	8	·	석 화	1	·	사 각	15	·	괴 불	3		연 등	6	
박 쥐	16	3	매 화	1		원	1	3	주머니	7	7			
나 비	13	12	천 도	1	2	팔 각		2	필 낭	1				
자 라	3		무궁화		4	마름모		4	장 도	2	1			
원 앙	1	1	국 화		12				호리병	1				
붕 어		1	고 추		2				안경집	1	2			
공 작		7							버 선	1	2			
거북이		10							부 채		8			
잠자리		3							도자기		1			
비둘기		4							골 무		3			
서 각	18								부 전		1			
									발 향		2			
계	59	41		3	20		16	8		16	26		6	

유물에서나 현대에서 똑같이 동물형이 가장 많았으며 박쥐는 유물에서 나비는 현대에서 가장 많이 애용된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유물에서 기하학형이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사각형이 많은 것은 향을 넣은 향갑이 수노리개에 많이 애용되었기 때문이고 현대에 기타형이 많은 것은 보다 개성적인 것과 한국적인 특색의 형태를 생활주변에서 찾았기 때문으로 본다.

석류, 매화, 연등, 천도는 현대에서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형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형태속에 담겨진 의미를 별로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본다.

현대에서 부전이라고 하는 형태는 골무, 원앙, 천도, 버선의 형태를 가로로 2줄, 세로로 3줄로 구성되었으며, 부전이란 ‘궁중에서 쓰던 노리개’라는 뜻이라고 판매자는 설명하였으나, 사전에는 ‘계집아 이들의 노리개의 하나’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전이라는 명칭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유물과 현대의 형태를 비교해 본 결과 새로운 것이 생기고 옛것은 사라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과 기호의 변화라고 생각된다.

(2) 문양 비교

유물에서는 식물문이 현대에서는 식물문과 동물

8) 이 학, 전개서, pp.202~207.

9) 이희승, 「국어사전」(서울:민중서관, 1963).

〈표2〉 유물 수노리개와 현대 수노리개의 문양 분류

(단위: 개)

문양	동물문		식물문		자연문		기하문		길상어문		기타	
시대 종류	유 물	현 대	유 물	현 대	유 물	현 대	유 물	현 대	유 물	현 대	유 물	현 대
1	박 쥐	22 8	연 꽃	31 1	구름	19 11	점	15 1	壽	15 1	태극	2 4
2	매 비	3	목 단	12 16	수파	33 20	선	6	喜	4	칠보	3
3	나 비	13 14	석 류	4 9	바위	15 12	와권	35	福	1		
4	봉 황	1 1	불로초	8 13			☯	4				
5	원 앙	3 10	매 화	21 14				2				
6	학	3 14	부 용	2								
7	귀 신	2	포 도	2			타원	1				
8	거북이	19	잎	25			亞	4				
9	공 작	10	천 도	10			전	1				
10			국 화	1 12			향	2				
11			대나무	7								
12			튤립	1								
13			딸 기	3								
계		46 76	대나무	116 76		63 43		63 6		19 2		5 4

문 같은 비율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유물에서는 길상어문을 애용하였는데 현대에서는 드물게 나타났으며, 유물과 현대에서 자연문이 애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전통미를 불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물형에서의 공작, 식물형에서의 튤립, 딸기같은 것은 현대에만 볼수 있는 문양이다.

(3) 색의 비교

① 바탕색의 비교

〈표3〉 유물 수노리개와 현대 수노리개의 바탕색 분류

(단위: 개)

계열 시대 색	황색		계열 시대 색	녹색		계열 시대 색	청색		계열 시대 색	붉은색		계열 시대 색	회색		계열 시대 색	검정	
	유 물	현 대		유 물	현 대		유 물	현 대		유 물	현 대		유 물	현 대		유 물	현 대
연황색		7	황녹색	1	13	진녹색		8	연분홍		1	회색	7		회색		
황 색	3	15	녹두색	2		옥 색	1	7	분 홍	1	4					1	
진황색	1	1	녹 색	2	6	연남색		2	진분홍	1							
연갈색			진녹색			남 색	2	12	주 황	13	2						
갈 색		3	청녹색			진청색	3		주 황	29	13						
진갈색		1							다 홍	29	13						
									적 색	19	14						
									자 주		1						
									보 라		3						
계	4	27		5	19		6	29		70	39		7			1	10 2

분류된 유물의 바탕색은 102개이며 현대는 11개였다. 둘다 붉은색 계통이 가장 많이 쓰였다. 특히 유물에서는 60% 이상이 붉은색 계통이었다.

반면, 현대에서는 붉은색·계통, 청색계통, 황색계통, 녹색계통 순으로 골고루 분포되었는데 유물에서 쓰여진 흰색은 찾을 수 없었다.

② 문양색의 비교

〈표4〉 유물 수노리개와 현대 수노리개의 문양색 분류

(단위:개)

계열 시대 색	황색		계열 시대 색	녹색		계열 시대 색	청색		계열 시대 색	붉은색		계열 시대 색	회색		계열 시대 색	회색		계열 시대 색	검정	
	유 물	현 대		유 물	현 대		유 물	현 대		유 물	현 대		유 물	현 대		유 물	현 대		유 물	현 대
연황색	19	14	황녹색	10	32	진녹색		13	연분홍	13	12	회색	27	40	회색	2		검정	19	30
황 색	43	40	녹두색	45		옥 색	3	10	분 홍	19	45					5				
진황색	3	10	녹 색	28	38	연남색			진분홍	27	3									
연갈색	5	2	진녹색	9		남 색	23	23	주 황	35										
갈 색	10	17	청녹색			진청색	34	5	주 황	15	11									
진갈색	1	3					39		다 홍	23	21									
									적 색	22	50									
									자 주	33										
									보 라	8	3									
계	81	86		92	70		101	51		194	145		27	40		2	5		19	30

유물이나 현대에서 똑같이 붉은색 계통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유물에서는 주황색을 현대에서는 적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유물에서나 현대에서 공통적으로 회색이 적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술의 비교

〈표5〉 유물 수노리개와 현대 수노리개의 술 비교

(단위:점)

술 시 종 대 류	봉 술				딸기 술	방울 술	낙지 발술	평면 처리 술	끈 술	색실 색천	매 듭	기 타	계
	1봉술	쌍봉술	3봉술	5봉술									
유물	7	19	2		32	3	4	11	5	5	6	3	97
현대		54	37	2	1							1	95

현대에서는 거의 봉술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쌍봉술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삼봉술이었다.

유물에서는 딸기술이 가장 많이 쓰였고 봉술중에는 쌍봉술이 많이 쓰였다. 그외에 색천, 색실, 평면처리술, 낙지발술이 사용되었다.

IV. 패용 경향

1. 수노리개 구성의 변화

따돈, 다회, 주체, 매듭, 술로 구성이 되는 수노리개는 현대에 와서 부분적으로 생략되거나 변형되고 있다. 변형되어 가고있는 이유는 간소화와 보다

남다른 특색을 원하는 소비자의 개성때문이며 형태가 가지는 상징성의 약화와 美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기 때문으로 본다.

(1) 띠돈

띠돈을 주로 이용하여 옷고름, 안고름에 패용하던 방식이 사라지고 치마끈에 다화의 고리부분을 이용하여 늘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2) 주체

보통 1개가 사용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인데 현대에서는 2개, 3개, 5개 7개, 10개로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형태를 한가지로 여러개 배열한 경우도 있었고, 다양한 형태를 여러개 복합적으로 배열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같이 주체의 수를 증가시켜 길이를 길게 하는 것은 한복의 형태에서 치마길이 길어지고 폭이 넓어지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술

색깔은 주로 매듭과 다화와 일치시키거나 적+남+황+다홍+녹을 적절히 배합시키는데 쌍봉술일 경우에는 같은색으로 하며 3봉술일 경우는 간혹 적, 남, 황을 배열하고 오봉술일 경우에는 5가지 색을 배합한 색동술이 많았다. 또한 딸기술도 오색 딸기술이 많았다.

2. 용도의 변화

수노리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용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 옷에 패용하는 목적외에 실내 장식용이나 생활용구의 부분에 장식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장롱의 열쇠고리에 걸어두거나 벽에 발을 늘이고 그 위에 수노리개를 늘이거나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 걸고 감상하기도 했다. 또한 냄비받침, 이불의 네귀나 보자기의 귀통이에 주체만을 달아 장식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진출로 장시간 정성들여 수를 놓는 일이 어려워므로 수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의복의 양장화로 수시로 패용할 수 없는 아쉬움 때문에 늘 두고 보려는 생각이 아닌가 추측한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조선시대 후기 유물 수노리개와 1990년을 중심으로 서울 시내 도매상가에 있는 현대 수노리개를 비교 고찰하였다.

조선시대 여인들이 애용한 장신구중에서 대표적인 노리개는 후기 자수의 발달과 함께 수노리개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노리개의 기원은 삼국시대의 요패로 생각되며, 수노리개의 기원은 고려시대 불교의 발달에 영향을 입은 것으로 생각된다.

수노리개의 구성은 띠돈, 다화, 매듭, 주체, 술로 구성되며, 주로 단작으로 패용되었으며 주체의 형태와 문양에는 다남, 장수, 부귀, 절개, 부부화합의 상징을 담고 있었다.

유물 수노리개와 현대 수노리개를 비교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물에 나타난 형태의 종류는 21종이며 현대의 것은 23종 이었다.

유물과 현대에서 똑같이 동물형이 많았으며, 유물에서는 박쥐가 현대에서는 나비가 많았다.

둘째, 유물에서는 식물문양이 많이 사용되었고, 현대에서는 식물문양과 동물문양이 같은 비율로 사용되었다.

셋째, 사용된 색을 비교했을때 바탕색과 문양색에서 유물이나 현대가 똑같이 붉은색 계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넷째, 바탕색과 문양색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붉은색바탕의 경우 유물에서는 붉은색계통의 문양색을 현대에서는 청색계통의 문양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그밖의 황색계통, 녹색계통, 청색계통, 검정계통의 바탕에는 유물과 현대가 공통적으로 붉은색계통을 많이 사용하였다.

다섯째, 술의 종류에는 딸기술, 봉술, 방망이술, 낙지발술, 방울술, 전복술이 있는데 유물에서는 딸기술이 현대에서는 봉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패용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구성면에서 띠돈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주체의 숫자가 여러개로 늘어났으며 수노리개의 용도가 옷에 패용하는 이외에 실내장식용 및 그외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패용하는 사람들의 수노리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았으며, 판매자 자체도 인식정도가 낮았다. 수노리개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특성은 좀더 전통적이고 개성이 있으며, 독특하고 화려한 것을 원하는 경향이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물과 현대 수노리개를 비교하여 변화점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현대의 수노리개를 일부지역에서만 수집하여 유물과 비교한 관계로 극히 제한적이었음을 밝히며 또한 색채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고, 유물의 색채가 퇴색되어 본래의 색이 아니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패용경향도 일부 판매자와의 방문 상담이므로 전반적인 경향이 아니라 일부의 견해임을 밝힌다.

참고문헌

- 김희진, 「한국매듭」, 서울 : 고려서적주식회사, 1982.
- 김영숙, 「한국복식사 사전」, 서울 : 민문고, 1988.
- 김영숙, 손경자, 「한국복식도감 : 조선왕조하」, 서울 : 예경산업사, 1984.
- 박경자, 「한국복식논개」, 서울 : 신구문화사, 1983.
- 석주선, 「장신구」, 서울 :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1.
- 서지호, 「한국 복식문양미」, 서울 : 일지사, 1982.
- 신동숙, 「노리개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심미경, 「조선왕조후기 노리개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 이경자, 「한국복식사론」, 서울 : 일지사, 1985.
- 이 학, 「한수 문화」, 서울 : 한국자수문화 협의회, 1986.
- 이희승, 「국어사전」, 서울 : 한국자수문화 협의회, 1986.
- 이세진, 「우리나라 노리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 유송옥, 「복식의장학」, 서울 : 수학사, 1975.
-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 삼성인쇄 주식회사, 1975.

조선회, 「동북아시아 유의 기원과 그 교류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황호근, 「한국장신구 미술연구」, 서울 : 일지사, 1976.

허동화, 「한국의 고자수」, 서울 : 삼성출판사, 1978.

최옥자, 「장신구」, 수도권여자사범대학 논문집, 1971.

최승복, 「수장신구의 미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ABSTRACT

The Study on Ancient Embroidered Norigae and Modern Embroidered Norigae.

-Focus on the Current Embroidered Norigae in 1990-

Hong Bok-ui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Woman in Choson era had various kind of accdssories like rings, ear ring, ornamentak hairpins and so on. Among them their favorite was the Norigae, the pendent trinket. With the embroidered ornament at its center, beads and knots were attached to the upper and lower part, and it was hung with a tassel. It was carried on the string of the Chogori. Norigae oreginated in waist string of Three Countries era(Silla, Paekje and koguryo);has been changed with the development of fashion, embroidery and the influence of Buddhist culture.

The differences between Embroidered Norigae and Norigae are following. If the ornament at its center is made of such jewels as gold, silver, jade and the like, it is called Norigae. But if the ornament at its center is made of the embroidered Norigae. Such a Embroidered Norigae in which

perfume was contained, was as a perfume box or a perfume bag and was carried on the strings of Chogori by Danjak(single work).

The Differences between ancient Embroidered Norigae of late Choson era and modern Embroidered Norigae are Following:

1) The type of main body—the embroidered ornament at its center was mainly embroidered with the shape of animals in both of ancient Embroidered Norigae was usually formed like a bat and that of modern Embroidered Norigae like butterfly.

2) Plants were adapted as the main design of ancient Embroidered Norigae, but plants and animals as that of modern Embroidered Norigae.

3) The colors of the background and the design are usually red in both ancient and modern Embroidered Norigae.

4) The tassels of ancient Embroidered Norigae

were made in the shape of stick and a strawberry, but the tassels of modern Embroidered Norigae were mainly made in the shape of a stick.

5) Nowadays the beauty of external form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while the symbol of main body was considered more important in Choson era.

6) The role of Thidon in the composition of Embroidered Norigae is declined and a lot of main bodies are used in modern Embroidered Norigae.

7) Modern Korean people are apt to choose Embroidered Norigae depending upon the design of main body and the traditional Korean beauty.

8) Modern people who desire to get new thing, try to make the design of main body various. As their cognition of Korean tradition is of the increase, the restoration of ancient Embroidered Norigae to its original form has been accom-